

자산어보[茲山魚譜]

조선에서 해양 생물 전문 백과사전이 만들어지다

1814년(순조 14) ~ 미상



1 개요

『자산어보(茲山魚譜)』는 정약전(丁若銓, 1758~1816)이 흑산도에서 유배 생활을 하는 동안 지은 책으로, 저술 시기는 1814년(순조 14)으로 추정된다. 현재 전하는 『자산어보』는 총 3권 1책이다. 1권은 인류(鱗類), 2권은 무린류(無鱗類) 및 개류(介類), 3권은 잡류(雜類)로 구성되었다. 『자산어보』에는 흑산도 근해의 해양 생물을 총 55류 226종으로 분류하여 기록하였다. 이들 해양생물의 명칭, 크기, 형태, 습성, 맛, 포획방법, 이용법 등이 다루어져 있다.

2 정약전의 생애와 흑산도 유배

정약전은 1758년(영조 34) 경기도 광주 마현(馬峴)에서 태어났다. 본관은 나주(羅州) 혹은 압해(押海)라고도 한다. 자는 천전(天全)이며, 누호(樓號)는 일성(一星), 재호(齋號)는 매심(每心)이다. 섬으로 유배된 뒤의 호는 손암

(巽菴)이다.

아버지는 진주목사를 지낸 정재원(丁載遠)이고, 어머니는 해남 윤씨로 윤덕렬(尹德烈)의 딸이자 윤두서(尹斗緒)의 손녀이다. 정재원은 부인이 두 명이었는데, 정약전은 둘째 부인인 윤씨의 3남 1녀 중 장남이다. 정약용과 정약종이 동생이다. 누이는 최초의 천주교 영세자인 이승훈(李承薰)과 결혼하였다.

정약전은 경기도 광주에서 살다가 19세 때인 1776년(영조 52)에 호조좌랑이 된 부친을 따라 서울로 오게 되었다. 그는 성호 이익(李翼)의 학문을 이어받은 권철신(權哲身)의 문하에서 수학하였으며, 이윤하(李潤夏), 이승훈, 김원성(金源星)과 교유하였다. 정약전은 26살인 1783년(정조 7) 사마시에 합격하여 진사가 되었고, 이듬해 이벽의 권유로 천주교에 입교하였다. 1790년(정조 14)에는 증광별시에서 급제하여 승문원 부정자에 제수되었다. 이후 성균관 전적을 거쳐 병조좌랑이 되었다. 이때 정조는 “정약전의 준결한 풍채가 정약용의 아름다운 자태보다 낫다.”라고 하며 총애했다. [관련사료](#) 정조 사후에 노론 벽파가 정국을 장악하면서 천주교에 연루된 남인 계열이 정계에서 축출되자 정약전은 1801년(순조 1) 2월 강진의 신지도(薪智島)로 유배되었다. [관련사료](#) 그러다가 11월 조카사위인 황사영의 백서사건으로 다시 압송되어 나주목(羅州牧)의 흑산도(黑山島)에 유배되었다. [관련사료](#)

유배 중에 정약전은 사촌서실(沙村書室)이라는 서당을 지어 어린아이들을 가르쳤다. [관련사료](#) 또한 『자산어보(玆山魚譜)』를 비롯하여 소나무 정책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담은 『송정사의의(松政私議)』, 흑산도 어민 문순득의 표류담을 적은 『표해록(漂海錄)』 등을 저술하기도 하였다. [관련사료](#)

이러한 정약전에 대해 정약용은 형의 건강을 염려하였다. 더욱이 육고기를 먹지 못하여 몸이 수척해지는 것을 걱정하여 형에게 5일에 한 마리씩 개고기를 삶아 먹을 것을 권유하는 편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정약용은 편지에 개를 잡는 방법과 요리법을 상세하게 적었고, 개고기 요리에 쓸 들깨 한 말을 편지와 함께 부쳐 보냈다. [관련사료](#)

하지만 정약전은 1801년(순조 1) 흑산도로 유배된 후 풀려나지 못한 채 16년의 세월을 보내고 1816년(순조 16) 내 흑산(內黑山) 우이보(牛耳堡)에서 59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였다. 형이 세상을 떠난 후 정약용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고을 수령이 서울로 올라갔다가 다시 그 고을에 올 때는 백성들이 모두 길을 막고서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말은 들었지만, 귀양살이하는 사람이 다른 섬으로 옮겨 가려 하자 그 섬의 백성들이 길을 막고 더 머물게 하였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관련사료](#) 고 하는 것으로 보아 유배지에서 정약전과 흑산도 주민들과의 관계는 매우 좋았던 듯하다.

3 자산어보의 저작 동기와 구성

『자산어보』는 흑산도 근해의 수산생물을 정약전이 직접 조사하고, 채집하여 정리한 것이다. 『자산어보』에서 ‘자산(玆山)’은 유배지인 흑산(黑山)을 말한다. 그러나 정약전은 흑산에 유배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지명을 꺼려 하였다. 흑산이라는 유배지의 이름이 귀양살이하는 자신처럼 음침하고 어둡다고 느꼈던 모양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약전은 동생 정약용과 가족에게 편지를 보낼 때마다 흑산을 자산으로 바꿔 사용했다.

이는 정약용도 마찬가지였다. 정약용은 자신의 유배지 강진에서 형이 있는 우이도를 바라보며 쓴 시에서 “흑산이라는 이름이 듣기만 해도 으스스하여 차마 그렇게 부르지 못했다.”라고 했다. 그래서 서신을 쓸 때마다 흑산을 자

산으로 고쳐 썼는데, 이때 ‘자(茲)’란 겹다는 뜻이었다. 관련사료 이런 이유로 정약전은 흑산도의 수족(水族) 자원을 정리한 책을 『자산어보』라고 명명한 것이다.

정약전이 『자산어보』를 저술한 이유는 서문에 나타나 있다. 당시 흑산도의 바닷속에는 어족은 많으나 이름을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많았다. 그래서 흑산도 주민들에게 찾아가 물어보니 물고기의 명칭이 모두 제각각이었다. 정약전은 흑산도 주민 장덕순(張德順)이라는 사람의 도움으로 흑산도의 어족을 연구했을 뿐 아니라 어족의 분류체계도 만들어 『자산어보』를 완성할 수 있었다.

이러한 『자산어보』에 대해 정약용은 2권으로 구성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관련사료 그러나 2권으로 된 『자산어보』 원본은 유실되었다. 현재는 소장자가 다른 여러 사본이 전해지는데, 모두 3권 1책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4 조선시대 해양생물학의 모든 것, 자산어보

현재 전하는 『자산어보』는 3권으로 구성되었다. 1권은 인류(鱗類), 2권은 무린류(無鱗類)와 개류(介類), 3권은 잡류(雜類)이다. 정약전은 흑산도의 어족을 우선 비늘의 유무를 기준으로 비늘이 있는 인류와 비늘이 없는 무린류로 나누었다. 또한 갑각류인 개류와 기타 해양 동식물을 포괄하는 잡류로 분류하였다.

먼저 인류에는 석수어(石首魚), 치어(鰻魚), 노어(鱸魚), 강항어(强項魚), 시어(鰯魚), 벽문어(碧紋魚), 청어(靑魚), 사어(鯊魚), 검어(黔魚), 접어(鰈魚), 소구어(小口魚), 도어(魴魚), 망어(鱗魚), 청익어(靑翼魚), 비어(飛魚), 이어(耳魚), 전어(箭魚), 편어(扁魚), 추어(鰱魚), 대두어(大頭魚) 총 20류 72종을 기록하였다. 무린류에는 분어(鰻魚), 해만려(海鰻鰻), 해점어(海鮎魚), 돈어(鮐魚), 오적어(烏賊魚), 장어(章魚), 해돈어(海豚魚), 인어(人魚), 사방어(四方魚), 우어(牛魚), 회잔어(繪殘魚), 침어(鰻魚), 천족섬(千足蟾), 해타(海蛇), 경어(鯨魚), 해하(海蝦), 해삼(海參), 굴명충(屈明蟲), 음충(淫蟲) 총 19류 43종을 기록하였다. 또한 개류에는 해구(海龜), 해(蟹), 복(鰻), 합(蛤), 감(蚶), 정(蛭), 담채(淡菜), 호(蠔), 나(螺), 율구합(栗毬蛤), 구배충(龜背蟲), 풍엽어(楓葉魚) 12류 66종을, 잡류에는 해충(海蟲), 해금(海禽), 해수(海獸), 해초(海草) 4류 45종을 기록하였다.

이처럼 정약전은 흑산도의 어류를 총 55류 226종으로 세분하였다. 서술 내용을 보면, 인류 석수어(石首魚) 항목의 대면(大鰾)의 경우, “대면 큰놈은 길이가 10자 남짓, 몸통은 두 뼘 정도이며, 모양은 민어를 닮았고, 빛깔은 황흑색이다. 맛도 민어와 비슷하나 더 진하다. 음력 3~4월경에 물 위에 뜬다. 어부들이 맨손으로 물고기를 잡는다.”고 하여 어종의 기본정보로 명칭 뿐 아니라 크기, 형태, 분포, 색, 맛, 잡는 방법 및 시기 등을 기술하였다.

무린류의 분어(鰻魚)를 설명할 때에는 “나주 가까운 고을에 사는 사람들은 썩힌 홍어를 즐겨 먹는데 지방에 따라 기호가 다르다. 배에 복통이 있는 사람은 썩힌 홍어로 국을 끓여 먹으면 더러운 것이 제거된다. 이 국은 술기운을 없애주는 데 매우 효과가 있다.”라고 하여 썩힌 홍어의 의학적 효용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서술하였다.

정약전은 흑산도 사람들의 경험과 지식을 많이 활용하였다. 『자산어보』 내용 가운데 “섬 사람이 말하기를, 이 물고기는 건륭 경오년(1750, 영조 26)에 처음 성했고, 가경 을축년(1805, 순조 5)까지는 풍흉이 반복되었으나 전혀 잡히지 않은 해는 없었다. 그런데 병인년 이후로 해마다 감소하여 지금은 거의 잡을 수가 없다.”라고 하여 섬사람들의 의견 및 경험을 기술하기도 하였다. 또한 “창대가 말하길, 영남산 청어는 척추골 수가 74마디이고 호남산 청

어는 척추골 수가 53마디라고 한다.”라고 하여 『자산어보』 저술에 도움을 주었던 정창대의 의견을 첨부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자산어보』에는 정약전의 지식과 관찰 외에 흑산도 주민의 의견이 첨부되었다. 그러나 정약전은 이들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자신의 이견도 덧붙여 『자산어보』를 서술하는 데 있어 비판적인 자세를 견지했다.

5 자산어보의 자료적 가치

『자산어보』는 정약전이 문헌에만 의존한 것이 아니라 다년간의 흑산도 생활에서 보고 들은 것을 토대로 흑산도의 해양 어종을 정리한 것이다. 따라서 문헌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어종들이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정약전이 직접 작명을 하기도 하였다.

정약전의 『자산어보』는 조선시대 수산업을 천시해 온 풍조 속에서 해양 생물을 체계적으로 분류한 것으로서,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매진했던 경학의 연구와는 다른 것이었다. 특히 어류 이외에도 해충과 같이 기존 문헌에 언급되지 않았던 내용까지 아우르고 있어 종합적인 해양생물학 사전이라 할 수 있다. 실학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당대 지식인들의 현실적이면서도 다양한 분야에 대한 탐구, 『자산어보』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